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에 관한 연구 - 통합 간호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일 대학을 중심으로 -

윤진¹⁾

서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고도의 의학기술과 정보기술의 발달, 간호대상자의 다양한 질병과 특성은 간호현장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간호사는 급변하는 건강관리 환경의 주요 인력으로서 대상자의 다양한 건강관리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비판적 사고는 어떤 견해를 받아들일지 또는 어떤 행위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언어적 표현과 행위에 대해 그 논리적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고 개념, 증거, 준거, 방법, 맥락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사고이다. 비판적 사고의 핵심 기능은 판단이며 비판적 사고의 목적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다(김명숙, 박정, 김광수, 정영숙과 성현정, 2001). 이와 같은 비판적 사고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의 인지적 측면의 기술과 비판적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의적 성향이 상호 작용하여야 한다(Ennis, 1991).

간호현장에서 비판적 사고는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적 사고로 여겨지고 있다(Rubinfeld & Scheffer, 1999; Tanner, 2000). 이에 간호 교육기관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추고 미래의 건강관리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설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전통적인 교육과정이 아닌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의 개별 교

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강의 중심의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김소선, 2003; 장효순, 윤배, 차영남과 윤진, 2004; 정복례, 김미예, 서순림과 홍해숙, 2003; 조원정 등, 1994; 홍경자 등, 1998). 이러한 추세는 한국보건직업인 국가시험원이 간호교육과정 졸업자의 전문적 능력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학과목 중심이 아닌 실무능력 중심으로 시험과목과 내용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더욱 촉진되고 있다(윤순영, 2004; 정여숙, 김금자, 차영남, 장효순과 윤진, 2006).

최근 간호교육에서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증강하기 위한 혁신적인 교육과정으로서 통합교육과정이 실제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김기용, 김원동, 남주현과 김유겸, 1995; 김재복, 2001; 장효순 등, 2004). 통합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자율학습능력에 중점을 두고 교과목의 경계를 없애며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묶어 같은 시기에 가르침으로서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의미 있는 전체를 이해하도록 하고 이론과 실무를 통합하려는 교육과정이다.

이에 전라북도 소재한 일 대학의 간호학부에서는 2003년도부터 기존 교육과정의 개별적인 교과목의 경계를 없애고 관련되는 개념을 통합적으로 묶은 통합교과목을 개발하였으며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방법을 도입하고 전체 학습과정에 비판적 사고 개념이 반복 활용되도록 한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통합교육과정에 따라 교수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일 대학 간호학

주요어 : 비판적 사고 성향, 통합 간호교육과정

1) 예수대학교 간호학부 부교수(교신저자 E-mail: jyoona@mpu.ac.kr)

투고일: 2008년 4월 29일 수정일: 2008년 5월 31일 심사완료일: 2008년 6월 5일

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의 정의적 측면인 성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비판적 사고 성향은 실제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Ennis, 1991). 이에 비판적 사고를 지향하여 설계된 통합교육과정으로 교육되는 간호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성향 정도와 대상자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나아가 본 연구가 보다 나은 통합 간호교육과정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간호학 전공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통합교육과정을 시행하는 일 대학 간호학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성향을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 및 간호학 전공 관련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통합교육과정을 시행하는 일 4년제 대학의 간호학부 전체 학생 424명이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7년 11월 19일에서 30일까지로 각 학년의 2학기 학사 일정이 끝나는 시기였으며 본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부, 수집하였다. 회수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한 응답을 한 18부를 제외한 406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도구 및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 및 간호학 전공 관련 특성에 관한 9문항과 비판적 사고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27문항을 구조화한 설문지를 도구로 사용하였다.

● 일반적 특성 및 간호학 전공 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학년, 성별, 연령, 종교, 성격에 관한 것이었으며, 간호학 전공 관련 특성은 전공만족 여부, 간호학 선택 동기,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만족 여부, 비판적 사고 교과목의 선택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 비판적 사고 성향

비판적 사고 성향이란 비판적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동기 또는 바람, 태도이다(윤진, 2004). 본 연구에서는 윤진(2004)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 성향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본 도구는 지적열정/호기심(5문항), 신중성(4문항), 자신감(4문항), 체계성(3문항), 지적공정성(4문항), 건전한 회의성(4문항), 객관성(3문항) 등의 7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였을 때 Cronbach's alpha 계수 .84 이었으며 선행연구(박승미와 권인각, 2007)에서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 이었다. 본 도구의 각 하위 영역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지적열정/호기심: 배움에 열망이 있으며 문제에 대한 해답을 탐색하고 사건의 원인과 설명을 구하기 위해 왜,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등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는 태도
- 신중성: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끈기 있게 정확한 결과를 추구하는 태도
- 자신감: 자신의 추론과정을 믿으며 비판적 사고를 통해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려는 태도
- 체계성: 논의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조직적이고 순서 바르게 탐구하고 결론에 이르기 까지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태도
- 지적공정성: 열린 마음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자신과 타인의 의견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 하려는 태도
- 건전한 회의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실에 대해 의심하는 태도를 가지며 자신과 타인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특성
- 객관성: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며 증거와 이유가 충분할 때 입장을 정하려는 태도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에 의해 전산 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비판적 사고 성향은 전체평균과 각 하위영역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의 차

이는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간호학 전공 관련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많고(27.3%) 4학년이 적었으며(22.9%) 대부분 여학생이었다(96.8%). 나이는 만18세부터 20세까지가 46.1%, 21세 이상이 53.9%였으며 가장 나이가 많은 대상자는 35세였다. 종교는 기독교로 응답한 학생이 많았으며(69.5%), 기타 종교가 10.5%, 종교가 없다는 학생이 20.0%였다.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는 외향적이라고 응답한 학생(46.1%)이 내성적이라고 한 학생(32.8%)보다 많았다.

<표 1> 일반적 특성 (n=406)

일반적 특성	N (%)	
학년	1	100 (24.6)
	2	111 (27.3)
	3	102 (25.1)
	4	93 (22.9)
성별	남	13 (3.2)
	여	393 (96.8)
나이	만 18~20세	187 (46.1)
	만 21세 이상	219 (53.9)
종교	기독교	282 (69.5)
	기타 종교	43 (10.5)
	무	81 (20.0)
성격	내성적	133 (32.8)
	외향적	187 (46.1)
	기타(내성적+외향적)	86 (21.2)

연구대상자의 간호학 전공과 관련된 특성은 <표 2>와 같다. 간호학 전공에 대해 만족한 학생이(72.9%) 불만족한 학생(27.1%)보다 두 배 이상 많았으며 간호학을 선택한 동기로는 취직이 보장되어서(48.3%)라고 응답한 학생이, 부모, 교사, 친지 등의 권유(26.8%)와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20.7%) 선택했다는 학생보다 많았다. 통합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과반수 정도(49.3%)의 학생이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응답을 한 학생이 37.7%였고 불만족 한다는 학생이 13.1%였다. 1학년 2학기에 개설된 비판적 사고 교과목을 선택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9.5%의 학생이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

연구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은 <표 3>과 같다. 대상자

<표 2> 간호학 전공 관련 특성 (n=406)

간호학 전공 관련 특성	N (%)	
전공 만족 여부	만족	296 (72.9)
	불만족	110 (27.1)
전공 선택 동기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	84 (20.7)
	부모, 교사, 친지 등의 권유로	109 (26.8)
	취직이 보장되어서	196 (48.3)
	기타	17 (4.19)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만족 여부	만족	200 (49.3)
	그저 그렇다	153 (37.7)
	불만족	53 (13.1)
비판적 사고 교과목 선택 여부	선택함	201 (49.5)
	선택하지 않음	205 (50.2)

의 비판적 사고 성향으로 측정된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57이었다. 각 하위 영역별로는 ‘지적열정/호기심’이 3.45, ‘신중성’이 3.46, ‘자신감’이 3.55, ‘체계성’이 3.12, ‘지적공정성’이 3.86, ‘건전한 회의성’이 3.63, ‘객관성’이 3.93점 이었다.

<표 3> 비판적 사고성향 (n=406)

측정변수	하위영역	M ± SD
비판적 사고성향	지적열정/호기심	3.45 ± .56
	신중성	3.46 ± .68
	자신감	3.55 ± .55
	체계성	3.12 ± .61
	지적공정성	3.86 ± .48
	건전한 회의성	3.63 ± .58
	객관성	3.93 ± .49
전 체	3.57 ± .3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은 <표 4>와 같다. 학년에 따라서는 5개 하위영역과 전체 평균에서 1학년의 점수가 2,3학년 보다 높았고 1학년과 4학년의 점수 비교에서는 6개 하위영역과 전체 평균에서 4학년의 점수가 1학년보다 높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하위 영역 중 신중성(F=3.256, p<.05)에서만 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이를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한 결과 4학년이 2학년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나이에 따라서는 나이가 많은 집단이 ‘신중성’(F=4.215, p<.05), ‘자신감’(F=4.776, p<.05)에서 나이가 적은 집단보다 점수가 높았다. 종교에 따라서는 하위영역과 전체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격에 따라서는 ‘지적열정/호기심’(F=4.985, p<.01), ‘신중성’(F=6.375, p<.01), ‘자신감’(F=5.428,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사후 검정한 결과 ‘지적열정/호기심’, ‘자신감’에서는 자신의 성격을 외향적이라고 한 학생이 내성적이라고 한 학생보다 점수가 높았고, ‘신중성’에서는 내성적이라고 한 학생이 외향적이라고 한 학생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n=406)

일반적 특성	비판적 사고 성향								
	지적열정/ 호기심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지적 공정성	건전한 회의성	객관성	전체	
	M ± SD	M ± SD	M ± SD	M ± SD	M ± SD	M ± SD	M ± SD	M ± SD	
학년	1(a)	3.48±.651	3.49±.731	3.53±.568	3.07±.676	3.87±.511	3.71±.612	3.97±.559	3.59±.41
	2(b)	3.39±.567	3.36±.664	3.50±.528	3.11±.513	3.86±.470	3.64±.550	3.89±.496	3.53±.32
	3(c)	3.45±.474	3.39±.651	3.58±.530	3.18±.647	3.81±.484	3.57±.541	3.89±.457	3.55±.32
	4(d)	3.49±.574	3.63±.652	3.59±.582	3.13±.642	3.90±.487	3.59±.619	4.00±.464	3.62±.40
	F	.585	3.256	.570	.548	.552	1.145	1.311	1.065
	p	.625	.022*	.635	.649	.647	.331	.270	.364
		(Scheffe d>b)							
성별	남	3.58±.465	3.73±.886	3.73±.616	3.17±.443	3.98±.483	3.82±.449	4.10±.416	3.73±.27
	여	3.45±.572	3.46±.673	3.54±.548	3.12±.624	3.86±.487	3.62±.583	3.93±.499	3.57±.36
	t	.830	1.409	1.187	.309	.878	1.221	1.205	1.595
	p	.407	.160	.236	.758	.380	.223	.229	.111
나이	18~20세	3.41±.630	3.39±.716	3.48±.565	3.08±.618	3.85±.513	3.69±.589	3.92±.543	3.54±.38
	21세이상	3.48±.510	3.53±.644	3.60±.533	3.16±.619	3.87±.465	3.59±.571	3.95±.454	3.60±.34
	t	1.421	4.215	4.776	1.442	.135	2.137	.354	2.073
	p	.234	.041*	.029*	.231	.713	.145	.552	.151
종교	기독교	3.49±.502	3.44±.665	3.58±.528	3.14±.583	3.87±.457	3.65±.528	3.93±.493	3.58±.330
	기타종교	3.33±.677	3.68±.719	3.60±.666	3.24±.767	3.86±.580	3.56±.813	3.93±.583	3.59±.500
	무	3.38±.703	3.45±.703	3.42±.547	3.01±.645	3.81±.537	3.60±.612	3.94±.464	3.51±.398
	F	2.254	2.465	2.854	2.103	.458	.522	.002	1.240
p	.106	.086	.059	.123	.633	.594	.998	.290	
성격	내성적(a)	3.34±.584	3.63±.646	3.43±.542	3.07±.610	3.87±.525	3.62±.560	3.88±.516	3.55±.35
	외향적(b)	3.54±.576	3.36±.691	3.63±.540	3.19±.646	3.87±.491	3.64±.607	3.98±.498	3.60±.39
	내+외(c)	3.43±.497	3.44±.669	3.56±.557	3.06±.562	3.83±.417	3.62±.556	3.91±.457	3.55±.31
	F	4.985	6.375	5.428	1.934	.242	.034	1.587	1.005
p	.007**	.002**	.005**	.146	.785	.967	.206	.367	
		(Scheffe b>a)	(Scheffe a>b)	(Scheffe b>a)					

*p<.05 **p<.01

대상자의 전공 관련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연구대상자의 전공 관련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은 <표 5>와 같다.

간호학 전공 만족여부에 따라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지적열정/호기심’(F=13.926, p=.000), ‘신중성’(F=4.661, p<.05), ‘자신감’(F=15.788, p=.000), ‘체계성’(F=4.208, p<.05), ‘객관성’(F=7.785, p<.01) 과 전체 평균(F=16.241, p=.000)에서 불만족 이라고 응답한 학생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간호학 선택 동기에 따라서는 ‘지적열정/호기심’(F=7.221, p=.000), ‘자신감’(F=4.167, p<.01), ‘지적공정성’(F=4.888, p<.01), ‘건전한 회의성’(F=3.046, p<.05), ‘객관성’(F=4.988, p<.01)과 전체 평균(F=8.452,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지적열정/호기심’, ‘자신감’, ‘지적공정성’, ‘객관성’과 전체 평균에서는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 간호학을 선택했다는 학생이 부모, 교사, 친지 등의 권유와 취직이 보장되어서 선택했다는 학생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건전한 회의성’에서는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

간호학을 선택했다는 학생이 취직이 보장되어서 선택했다는 학생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만족 여부에 따라서는 ‘신중성’(F=3.708, p<.05), ‘자신감’(F=10.608, p=.000), ‘객관성’(F=4.547, p<.05)과 전체 평균(F=6.418,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사후 검증한 결과 ‘자신감’ 영역에서는 만족한다고 한 학생이 그저 그렇다와 불만족이라고 한 학생보다 점수가 높았고 ‘신중성’, ‘객관성’ 과 전체 평균에서는 만족한다고 한 학생이 불만족이라고 한 학생보다 점수가 높았다.

논 의

본 연구대상자의 비판적 사고 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57 점(130점 만점 시 96.55점)으로 통합교육과정을 시행하지 않는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윤진, 2004)에서 4년제 학생이 3.53점, 3년제 학생이 3.46점인 것 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

〈표 5〉 전공 관련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n=406)

간호학 전공 관련 특성		비판적 사고성향							
		지적열정/ 호기심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지적 공정성	건전한 회의성	객관성	전체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전공 만족 여부	만족	3.51±.532	3.51±.678	3.61±.528	3.16±.633	3.88±.469	3.65±.585	3.98±.497	3.61±.36
	불만족	3.28±.629	3.35±.677	3.37±.573	3.02±.570	3.79±.530	3.57±.565	3.82±.479	3.45±.35
	F	13.926	4.661	15.788	4.208	2.792	1.662	7.785	16.241
	p	.000***	.031*	.000***	.041*	.095	.198	.006**	.000***
간호학 선택 동기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a)	3.69±.476	3.57±.616	3.72±.474	3.25±.678	4.03±.398	3.76±.502	4.11±.428	3.74±.29
	부모, 교사, 친지 등의 권유로(b)	3.37±.572	3.38±.682	3.51±.583	3.09±.578	3.80±.485	3.61±.565	3.87±.496	3.52±.35
	취직이보장되어서(c)	3.38±.572	3.44±.686	3.48±.529	3.09±.619	3.83±.479	3.56±.595	3.89±.482	3.52±.36
	기타(d)	3.57±.63	3.77±.82	3.64±.76	3.09±.52	3.73±.76	3.83±.48	3.98±.75	3.67±.52
F	7.221	2.442	4.167	1.393	4.888	3.046	4.988	8.452	
p	.000***	.064	.006**	.245	.002**	.029*	.002**	.000***	
		(Scheffe a>b, c)		(Scheffe a>b, c)		(Scheffe a>b, c)	(Scheffe a>c)	(Scheffe a>b, c)	(Scheffe a>b, c)
통합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 여부	만족(a)	3.51±.519	3.53±.693	3.67±.526	3.18±.631	3.87±.476	3.67±.562	4.00±.523	3.63±.34
	그저 그렇다(b)	3.42±.604	3.46±.641	3.47±.527	3.08±.583	3.85±.503	3.60±.625	3.90±.473	3.54±.37
	불만족(c)	3.33±.626	3.24±.711	3.3±.608	3.05±.665	3.83±.492	3.56±.503	3.78±.424	3.44±.36
	F	2.415	3.708	10.608	1.555	.190	1.010	4.547	6.418
p	.091	.025*	.000***	.212	.827	.365	.011*	.002**	
		(Scheffe a>c)	(Scheffe a>b, c)				(Scheffe a>c)	(Scheffe a>c)	
비판적 사고 교과목 선택 여부	선택함	3.46±.615	3.44±.695	3.57±.577	3.16±.661	3.87±.514	3.65±.620	3.96±.498	3.58±.39
	선택하지 않음	3.45±.520	3.50±.663	3.52±.525	3.08±.574	3.85±.460	3.61±.537	3.91±.495	3.56±.33
	F	.671	2.020	.569	.991	.320	1.364	.735	1.013
	p	.512	.134	.566	.372	.726	.257	.480	.364

*p<.05 **p<.01 ***P<.001

구에서 130점 만점에 99.14점(5점 만점 시 3.67점)인 것 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승미와 권인각, 2007). 이는 간호사의 경우 간호학생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추론을 할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학부과정 동안 다양한 교육경험을 통해 비판적 사고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 문제중심학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 영역에 있어서는 ‘객관성’(3.93), ‘지적공정성’(3.86), ‘건전한 회의성’(3.63), ‘자신감’(3.55), ‘신중성’(3.46), ‘지적열정/호기심’(3.45), ‘체계성’(3.12)순으로 점수가 나타났다. 선행연구(윤 진, 2004)에서는 4년제 학생의 경우 ‘객관성’(3.94), ‘지적공정성’(3.76), ‘건전한 회의성’(3.67), ‘자신감’(3.54), ‘지적열정/호기심’(3.43), ‘신중성’(3.26), ‘체계성’(3.19)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지적열정/호기심’, ‘신중성’ 영역만 순서가 바뀌고 나머지 영역은 점수의 순이 같았다. 박승미와 권인각(2007)은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한 결과 ‘신중성’(88.5%), ‘객관성’(80.8%), ‘지적공정성’(78.7%), ‘지적열정/호기심’(73.5%), ‘자신감’(71.7%), ‘건전한 회의성’(71.6%), ‘체계성’(68.1%) 순으로 점수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학생

의 경우에는 ‘객관성’이 가장 점수가 높았으나 간호사의 경우에는 ‘신중성’이 가장 높고 다음이 ‘객관성’이었다. 객관성은 추측하기 보다는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사고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태도로서 간호 상황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특성인 근거 중심의 사고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간호사에서 ‘신중성’의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은 본 연구에서도 연장자 집단의 ‘신중성’ 점수가 높게 나타나 다른 하위 영역보다 ‘신중성’이 나이의 영향을 더 받는다고 생각된다. 한편 학생이나 간호사 대상 연구 모두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것은 ‘체계성’이었다. 체계성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조직적이고 순서 바르게 탐구하고 결론에 이르기 까지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으로서 간호 문제해결에 중요한 태도이다. 따라서 추가 연구를 통해 체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의 차이는 학년, 연령, 성격에서 하위 영역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 따라서는 ‘신중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검정 결과 4학년이 점수가 높았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본 대학의 통합교육과정이 2학년부터 본격화되어 4학

년에서 완성되므로 학년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본 결과는 이를 부분적으로 확인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중성’은 다른 영역에 비해 나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고 다른 하위영역과 전체 평균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학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학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5개 하위영역과 전체 평균에서 1학년의 점수가 2,3학년보다 높게 나온 결과는 간호학 전공과목 이수가 2학년부턴 시작되면서 통합교과목으로 팀티칭이 이루어지고 문제중심학습이 적용되는 등 과거의 학습방법과 차이가 있는 것에 따른 학생의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체 평균에서 2학년(3.53)보다는 3학년(3.55)이 점수가 높고 4학년(3.62)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결과는 통합교육과정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성향이 강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결과로 여겨진다. 전통적인 교육과정이 적용된 학생에 있어서는 선행연구(윤진, 2004)에서 2학년(3.52)보다 3학년(3.50)이 점수가 낮아지고 사후 검정에서 3학년보다 4학년(3.60)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본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므로 추가연구를 통해 그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이에 따라서는 ‘신중성’과 ‘자신감’에서 나이가 많은 집단의 점수가 높았다. 박승미와 권인각(2007)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이에 따른 비교는 하지 않고 임상경력으로 비교한 결과 경력이 오래될수록 전체 평균이 높았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비판적 사고 성향과 나이와의 관련성을 시사하였다. 성격에 따라서는 ‘지적열정/호기심’, ‘신중성’, ‘자신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적열정/호기심’과 ‘자신감’에서는 외향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점수가 높았으며 ‘신중성’에서는 내성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점수가 높았다. 성격특성은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김미애와 박상연 역, 2001) 배움에 열망이 있으며 사건의 원인과 설명을 구하기 위해 질문을 제기하는 태도인 지적열정이나 호기심 그리고 자신의 추론과정을 믿는 태도인 자신감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외향적인 성격에서 점수가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충분한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끈기 있게 정확한 결과를 추구하는 태도인 신중성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내성적인 성격에서 점수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어 성격이 비판적 사고 성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간호학 전공 관련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은 전공만족 여부, 간호학 선택 동기,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만족 여부에 있어서 하위영역과 전체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만족 여부에 따라서는 전공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지적열정/호기심’,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객관성’과 전체 평균에서 점수가 높아 학생들이 전공하는 학문에 긍지를 갖고 만족할 때 불만족한 학생보다 비판적 사고 성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간호학 선택 동기에 따라서는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 선택했다는 학생이 ‘지적열정/호기심’, ‘자신감’, ‘지적공정성’, ‘건강한 회의성’, ‘객관성’과 전체 평균에서 다른 이유로 선택했다고 한 학생보다 점수가 높았다. 동기는 마음을 먹거나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나 근거로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 간호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배움의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특성이 있을 것이므로 비판적 사고 성향도 보다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만족 여부에 따라서는 만족한다고 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신중성’, ‘자신감’, ‘객관성’과 전체 평균에서 점수가 높았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역할이 단지 외부 인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계획, 목표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자가 아니라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상호작용 할 때 교육성과가 있음을(강인애, 2003)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합교육과정에 만족한 학생일수록 통합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사고와 행동 특성을 보일 것이므로 비판적 사고 성향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으로 생물학적 특성인 나이, 정신적 특성인 성격, 간호학 선택 동기, 전공 선택 및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만족 여부, 사회문화적 특성인 학년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설된 비판적 사고 교과목 선택 여부는 비판적 사고 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과목의 교수학습내용과 운영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 성향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통합교육과정을 시행하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통합 간호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일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 성향을 조사하고 대상자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11월19일에서 30일까지였으며 1학년부턴 4학년까지 424명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

부, 이중 406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one way ANOVA 및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비판적 사고 성향 정도는 전체 문항 평균이 3.57 ± 0.36 이었고, 하위 영역별로는 ‘객관성’ 3.93 ± 0.49 , ‘지적공정성’ 3.86 ± 0.48 , ‘건전한 회의성’ 3.63 ± 0.58 , ‘자신감’ 3.55 ± 0.55 , ‘신중성’ 3.46 ± 0.68 , ‘지적열정/호기심’ 3.45 ± 0.56 , ‘체계성’ 3.12 ± 0.61 순으로 점수가 나타났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판적 사고 성향을 분석한 결과 학년에 따라서는 ‘신중성’($F=3.256, p<.05$)에서 4학년이 2학년 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나이에 따라서는 나이가 많은 집단이 ‘신중성’($F=4.215, p<.05$), ‘자신감’($F=4.776, p<.05$)에서 점수가 높았다. 성격에 따라서는 외향적인 학생이 ‘지적열정/호기심’($F=4.985, p<.01$), ‘자신감’ ($F=5.428, p<.01$)에서 점수가 높았고 내성적인 학생이 ‘신중성’($F=6.375, p<.01$)에서 점수가 높았다.
- 대상자의 간호학 전공 관련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분석결과 간호학 전공 만족여부에 따라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지적열정/호기심’($F=13.926, p=.000$), ‘신중성’ ($F=4.661, p<.05$), ‘자신감’($F=15.788, p=.000$), ‘체계성’($F=4.208, p<.05$), ‘객관성’($F=7.785, p<.01$)과 전체 평균($F=16.241, p=.000$)에서 점수가 높았다. 전공 선택 동기에 따라서는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 간호학을 선택했다는 학생이 ‘지적열정/호기심’($F=7.221, p=.000$), ‘자신감’($F=4.167, p<.01$), ‘지적공정성’($F=4.888, p<.01$), ‘건전한 회의성’($F=3.046, p<.05$), ‘객관성’($F=4.988, p<.01$)과 전체 평균($F=8.452, p=.000$)에서 다른 동기로 입학한 학생보다 점수가 높았다.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만족 여부에 따라서는 만족한다고 한 학생이 ‘신중성’($F=3.708, p<.05$), ‘자신감’($F=10.608, p=.000$), ‘객관성’($F=4.547, p<.05$)과 전체 평균($F=6.418, p<.01$)에서 점수가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통합교육과정이 시행되는 대학의 간호학생만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학생들도 동시에 조사하여 비교연구 할 것을 제언한다.
-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비판적 사고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에 대해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 영역 중 체계성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제언한다.

- 비판적 사고능력을 강화하려는 통합교육과정의 시행 목적과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강인애 (2003). *우리시대의 구성주의*. 서울: 문음사.
- 김기용, 김원동, 남주현, 김유겸 (1995). 울산의대의 통합의학 교육: 과거, 현재, 미래, *한국의학교육*, 7(2), 115-122.
- 김명숙, 박 정, 김광수, 정영숙, 성현정 (2001). *사고력검사개발연구(1) - 비판적사고력 검사 예비문항 개발판*.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미예, 박상연 역 (2001). *비판적사고의 간호적용*. 서울: 정담.
- 김소선 (2003). *한국 일개 간호대학의 간호교육과정*. 과학의 날 기념 간호학종합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 김재복 (2001). *통합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사.
- 박승미, 권인각 (2007). 간호사의 임상 의사결정능력 영향 요인-비판적 사고 성향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37(6), 863-871.
- 윤순영 (2004). *간호사 국가시험 통합전망*. 정신간호학회 하계 워크샵 자료집.
- 윤진 (2004). *비판적 사고 성향 측정도구 개발*. 간호학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장효순, 윤 배, 차영남, 윤진 (2004). 간호대학 통합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예수간호논집*, 2(1), 21-35.
- 정복례, 김미예, 서순림, 홍혜숙 (2003). 일 대학 간호학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9(2), 298-309.
- 정여숙, 김금자, 차영남, 장효순, 윤진 (2006). 통합교육과정 시행경험에 대한 연구, *예수간호논집*, 4(1), 24-38.
- 조원정, 김소야자, 오가실, 유지수, 황애란, 김혜숙, 고일선 (1994). 간호학 교과과정 개념틀 개발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4(3), 473-483.
- 홍경자, 홍여신, 이은옥, 박정호, 이소우, 서문자, 최명애, 이명선, 이인숙 (1998). 학부 교과과정 개편을 위한 연구, *간호학논집*, 12(2), 258-279.
- Ennis, R. H. (1991). A streamlined conception, *Teaching Philosophy*, 14(1), 44-48.
- Rubinfeld, M. G., & Scheffer, B. K. (1999). *Critical thinking in nursing - an interactive approach*. Philadelphia: Lippincott.
- Tanner, C. A. (2000). Critical thinking revisited: paradoxes and emerging perspectives. *J Nursing Education*, 35(1), 3-4.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ing Students - Focusing on a School Applying Integrated Nursing Curriculum -

Yoon, Jin¹⁾

1)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Margaret Pritchard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gre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ing students and the factors influenci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Method:** The subjects were 406 nursing students attending at one university who have been taught by the integrated nursing curriculum. Data was collected by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Nov. 11, 2007 to Nov. 30, 2007. The survey tool developed by Yoon(2004) was used. Data was analyzed by t-test, one way ANOVA and Scheffe test using SPSS Win 12.0. **Result:** The mean scor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as 3.57. The sub scale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regard to grade, age and character of subjects. Overall mean scor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its sub sca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degree of satisfactory of majoring nursing, reason of choosing nursing as a major and satisfaction on integrated nursing curriculum. **Conclusion:** Critical thinking ability is very important in various nursing situations. Integrated nursing curriculum was developed to improve critical think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t is recommended that evaluation on the goal attainment of the integrated nursing curriculum needs to be monitored continuously.

Key words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tegrated nursing curriculum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oon, Jin

*College of Nursing, Margaret Pritchard University
168-1 1Ka Junghwasandong, Jeonju, Jeonbuk 560-714, Korea
Tel: 82-63-230-7764 Fax: 82-63-231-7790 E-mail: jyoona@mpu.ac.kr*